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6호 [주제 제25695호] 주제106(2017)년 7월 5일(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제106(2017)년 7월 3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회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
지도밑에 국방과학
원 과학자, 기술자를
온 주제 106(2017)
년 7월 4일 새로 연
개발한 대륙간탄도
로케트 《화성-14》
형시험발사를 성공적
으로 진행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
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
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리병철동지, 김학경
동지, 김정식동지, 청
승일동지, 장창화동
지, 전일호동지, 윤진
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
대미문의 정치적공갈
과 경제봉쇄 등속에
서도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
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한도
한보유국으로 급상승

시키는데 이어 또다시 이 행성 최강
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되도
록 성령적으로 령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운해안에 미국
본토타격능력을 보여줄 대륙간탄도로
케트시험발사를 반드시 단행할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그 준비사업
을 전투에서 직접 조직지휘하시였다.

당중앙의 전략적구상과 명령이라면
그 어떤 에로와 난관도 박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국방과학원 과학
자, 기술자는 한밤중에도, 이른새벽
에도 허먼지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
발사현장을 스스럼없이 찾고 찾으시
여 새행의 침단로케트개발의 초행길을
한 치 한 치 열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물결은 천진하고
무한히 고무되어 뚜렷적인 정신력

과 기술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대형 중량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케트를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
로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

험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로케트총조
립전투현장을 계속 찾으시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과학자, 기술자를
함께 계시면서 발사준비과정을 세심히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누구의 지원이나 기술이전에 의한 모방

이 아니라 절두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

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을

바라보시며 미남자처럼 듬직하니 잘 생

겼다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뜻내 만족

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미국에 뚜렷히 보여줄 때가

왔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발
사당일 이른새벽 또다시 로케트시험
발사장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계획을 료해

하시였다.

또한 1계단 대출력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을 재확증하고 실지 비행조건
에서 새로 개발된 비추진력이 횡선 높은
2계단발동기의 시동 및 차단특성과
작업특성들을 확증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 설계한 계단분리체
계의 동작정확성과 밀유성을 검토하
였으며 전투부분리후 중간구간에서

중량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
하고 최대의 가혹한 채돌입환경조건
에서 말기유도특성과 구조안정성을
확증하였다.

특히 채돌입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 °C의 고온과 가혹한 파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침투내부온도
는 25~45°C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정상
동작하였으며 전투부는 그 어떤 구조
적파괴도 없이 비행하여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장착한 이동식
발사대차의 기동특성과 발사준비공정

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도 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시소에서 통행한 일
군들과 함께 영상표시
장치에 현시되는 대륙
간탄도로케트의 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
성-14》형의 시험발사
결과를 분석하시고
완전대성공이라고 선언
하시자 발사장은 이를
할수 없는 드러운 적정
과 환희로 물들어나마
냥 빛이 번지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오늘의 특대사변을 안다
온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꽉
꽉 안아주시며 오래도록
기쁨을 함께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으로 걸묘한 시점에
거만한 미국놈들의 면
상을 후려칠 중대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
하여 동포함을 금지
못해하는 일군들과 과

학자, 기술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전략
적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색
마을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
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
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난
5월에만도 《화성-12》형, 《북극
성-2》형을 비롯한 새형의 전략무기
들의 실전능력을 련이어 폐시하고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실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
14》형시험발사까지 단번에 통과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주
적존엄과 영웅적인민의 불굴의 기상
을 남김없이 밝지고 우리 당의 절대
적인 권위를 결사옹위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3 면 으로 계속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대성공은 장장 수십년 세월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발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승고한 경의와 감사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

리 조국의 종합체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박과 제재속에서도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을 든든히 다져놓은데 대하여 용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파란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

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전체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협로역경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쌓그리 다바치시여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영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정론

위대한 우리 조국 만만세!

매륙간한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여

광대한 지구우에 우리 조국이 또 한번 놀라운 행진으로 빛나게 뻗쳤다.

주제 106(2017)년 7월 4일, 바로 이날 오전 9시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도로케트 《화성-14》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쪽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은 광성이 말그대로 거대한 결정과 환희의 용입니다.

집집에서, 초소와 일터들에서, 디수화를 향해 내달리는 험험진아들들과 수천 척지하미정에서까지 울리는 우렁한 만세의 환호성이 조국강원을 진감한다.

아마도 지금처럼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떠들어나와 경축의 노래춤바다를 펼쳐놓은 적 없으리라.

경시면 이보다 더 큰 경기, 기쁨이 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강국의 꽂민진 자부심이 하늘땅과 득자님되는 함으로 눈물김도록 감격적인 인민의 경자, 인민의 명절이다.

서리발총검을 펼쳐놓고 한밤을 지새운 전호기의 명사들과 자력자강의 마치로 부강조국건설의 뇌성을 높이 울려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운 제례, 숨기진 지혜로 원주민들의 아버지적인 세제어 파렴구를 내며 조국의 보복에 민족의 나비를 떨어주는 파학자, 기술자들과 조국땅 끝곳에 펼쳐진 거창한 상조전례의 위용자들이 오늘의 대륙사변에 접하여 결정의 만세, 만만세를 부르고 또 부른다.

세계를 전통에 한 지하핵시험의 성공과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 소식들, 우리식의 위력한 주제무기들의 디파직이고 험직적인 시험성공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만세를 위쳤던 사변들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어이하여 오늘은 이처럼 천만의 기습을 끊임없이 울리는것인가.

남녀로소 가령없이 이 땅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결정의 활호를 우렁차게 떠들며 그리도 승리의 회열에 가슴뛰는것은 파연 무었때문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핵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빼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국가력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인 대륙간한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된 주제조선의 물체의 국력과 무게와 같은 선으로 위대한 민족의 세 힘사가 풀기자기 흐르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눈앞에 조국이 더욱한 또 하나의 승리가 강산을 친감하면 그 날 몸소 뜨거운 앙고 만수대언으로 오로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기념하고자 한다.

민족마다 세기를 두고 갈망하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다.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넘원은 무엇이었거나, 그것은 바로 강위력한 국방력이었다.

제국주의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인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지난 한 세기전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대리 밤에 있는 《조선인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풀을 드리우고 있는 한강의 그림으로 당시 월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되었던 조선을 보자하였다.

조선을 탐내는 주변국들이 우리 나라를 제마끔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자 영광전을 벌리면서 지닌 세기의 일이다. 《시밀야마장대곡》으로 가슴을 뛰어들어보고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로면서 까지 항기와 나섰으나 우리 인민에게 차례전것은 망국이었고 심지어 노예의 피눈물이었다.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사태와 망국의 떡사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풀에 차릴 힘이 약했던 탓에 겪은 약소국의 수난사였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배의 눈물을 끌어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훌리간 떡시의 추억만이던가.

오늘의 세계는 또 어떤가. 우리는 보고있다.

침략적인 외세가 마구 날려보낸 미씨일들과 충포단에 헤히로 끝나버린 고황과 짐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롯하여 원주민들이 펼쳐진 거창한 상조전례의 위용자들이 오늘의 대륙사변에 접하여 결정의 만세, 만만세를 부르고 또 부른다.

세계를 전통에 한 지하핵시험의 성공과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 소식들, 우리식의 위력한 주제무기들의 디파직이고 험직적인 시험성공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만세를 위쳤던 사변들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어이하여 오늘은 이처럼 천만의 기습을 끊임없이 울리는것인가.

남녀로소 가령없이 이 땅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결정의 활호를 우렁차게 떠들며 그리도 그리도 승리의 회열에 가슴뛰는것은 파연 무었때문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핵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빼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국가력무력완성을 위한 최종판문인 대륙간한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위대한

시대를 《민족보존의 무기》로 삼아온 민족의 수난사를 끝장내고 자주로 빛나고 선으로 위대한 민족의 세 힘사가 풀기자기 흐르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승리가 강산을 친감하면 그 날 몸소 뜨거운 앙고 만수대언으로 오로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기념하고자 한다.

민족마다 세기를 두고 갈망하는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다.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넘원은 무엇이었거나, 그것은 바로 강위력한 국방력이었다.

제국주의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인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지난 한 세기전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대리 밤에 있는 《조선인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풀을 드리우고 있는 한강의 그림으로 되었던 조선을 보자하였다.

이 나라 인민의 더럽없는 감사의 정이 원만군의 무기로 삼가 실렸던 꽃다발이었다. 한정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길에 불평의 엄격한 생활을 살피우신 위대한 운인들께 드리신 더럽없는 경의였다.

어찌 알수 있을 있으랴.

병진의 길, 세상과 함께 알지 못하는 이 독상적인 길을 계시하고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 국민의 영명을 억지같이 걸어오신 우리 수령님.

그 누가 내 마음을 물려줘도 물려준 대도 최망안하고 이 길을 가고 가려라는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시며 시련의 일이다. 《시밀야마장대곡》으로 가슴을 뛰어들어보고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로면서 까지 항기와 나섰으나 우리 인민에게 차례전것은 망국이었고 심지어 노예의 피눈물이었다.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사태와 망국의 떡사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풀에 차릴 힘이 약했던 탓에 겪은 약소국의 수난사였다.

이로써 우리 조국의 지위가 굳본적으로 끌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성과 함께 세계가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한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혁강국으로 세계의 면모를 드러냈다.

전승의 7월에 우리 민족이 또다시 맞이한 특별시대, 이는 전쟁 대를 이어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 있어 오늘 우리 민족의 행운을 얼마나 가슴부풀게 새겨주고 있는것인가.

승리는 원한다고 지니는것이 결코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을 모신 민족만이 누릴수 있는 행운이고 궁지이다.

이어하여 승리의 환호성을 강산을 진갈하려도 인민의 마음은 져彘이 후대워오르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 조국과 온 세계를 열화같이 격동시키고 새롭게 진동시키는것인가.

민족사에 흥미한 이 대성과, 특대 사변과 마불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인의 림을 품어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노래와 함께 세계가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한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혁강국으로 세계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제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와 세계 혁강국의 전례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핵전쟁 위험공각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

한 면영의 대로가 더욱 높부시게 펼쳐지게 되었다.

세계를 면화시킨 10가지 밤영이 사방이요 하는것들이 오늘날 인터넷에는 곧잘 오른다. 하지만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침대명기》와 함께 조선이 보유한 대륙간한도로케트가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떤 특대발명과 겹줄수 없을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 나날속에는 걸은 밤, 이튿새벽 도 가지 않으시고 시험발사장을 찾으시면서 밤동기 연구 제작을 표시하시면서 밤동기 연구 제작을 위해 심신을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들과 함께 동리오는 새날을 맞으시면 무수한 아침도 있다.

두사루의 헌충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흥대로 기아이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임이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두사루의 헌충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흥대로 기아이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임이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이 기술을 담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평생공직자들이 대수학자들과 군수로 세계에 걸친 책임을 엄마도 있다.

한 면영의 대로가 더욱 높부시게 펼쳐지게 되었다.

세계를 면화시킨 10가지 밤영이 사방이요 하는것들이 오늘날 인터넷에는 곧잘 오른다. 하지만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침대명기》와 함께 조선이 보유한 대륙간한도로케트가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떤 특대발명과 겹줄수 없을만큼 위대한 것이다.

그 나날속에는 걸은 밤, 이튿새벽 도 가지 않으시고 시험발사장을 찾으시면서 밤동기 연구 제작을 표시하시면서 밤동기 연구 제작을 위해 심신을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들과 함께 동리오는 새날을 맞으시면 무수한 아침도 있다.

그 나날속

